

1분기 경제 성장률 1.3%...수출·건설·민간소비 회복 추세

2년여만에 최고 수준...건설투자 2.7%↑·민간소비 0.8%↑ 한은 "내달 성장경로 수정...최근 불안한 환율·물가 등 반영"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수출과 건설투자, 민간 소비 등의 호조에 힘입어 1% 이상 성장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다소 올려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예상보다 높은 1분기 성장률에는 지난해 4분기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가 일정 부분 반영된 데다, 이달 2분기 초입부터 이스라엘-이란 충돌로 유가·환율 등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강한 성장세 지속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한은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1.3%로 집계됐다고 25일 발표했다. 2021년 4분기(1.4%)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다.

수출 급감과 함께 2022년 4분기(-0.3%) 뒷걸음친 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0.3%) 반등한 뒤 2분기(0.6%), 3분기(0.6%), 4분기(0.6%)와 올해 1분기까지 다섯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기조를 유지했다. 1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특히 건설투자가 건물·토목 건설이 동반 회복하면서 2.7% 뛰었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양호한 기상 여건, 일부 사업장의 마무리 공사 진행 등으로 건설 기성이 늘면서 건설투자 성장률이 큰 폭의 플러스(+)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수출도 휴대전화 등 정보기술(IT) 품목을 중심으로 0.9% 성장했고, 민간소비의 경우 의류 등 제화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가 모두 늘어 0.8% 증가

했다. 정부소비 역시 물건비 위주로 0.7% 늘었다. 신 국장은 민간소비 성장에 대해 "소비심리 회복에 대외활동도 늘어난 데다 휴대전화 신제품 출시 등의 영향도 받았다"고 분석했다. 반대로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등의 침체로 0.8% 뒷걸음쳤고, 수입도 전기장비 등을 중심으로 0.7% 감소했다. 1분기 성장률에 가장 크게 기여한 항목은 건설투자 등을 포함한 민간투자(0.6%p)와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수출(0.6%p)로, 0.6%포인트(p)씩 1분기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민간소비(0.4%p)와 정부소비(0.1%p)도 성장에 힘을 더했다. 하지만 정부투자(-0.1%p)는 0.1%p 성장률을 깎아내렸다. 총선 관련 재정지출 등을 포함한 정부소비(0.1%p)와 합산하면 결국 정부의 1분기 성장률 기여도는 0%로 낮아졌다. 업종별 성장률의 경우 건설업이 4.8%로 가장 높았고, 전기·가스·수도업이 1.8%로 뒤를 이었다.

화학제품·운송장비 등을 위주로 제조업도 1.2% 성장했고, 서비스업은 도소매·숙박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0.7% 늘었다. 그러나 재배업 등의 위축으로 농림어업은 3.1% 감소했다. 1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은 2.5%로 실질 GDP 성장률(1.3%)을 웃돌았다. 반도체 등 수출품목의 가격 상승폭이 원유 등 수입품목을 웃돌면서 교역 조건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신 국장은 내수 회복세에 대해 "1분기 성장률이 지난 2월 전망 당시 성장 경로를 상회한 것은 맞다"며 "하지만 민간소비의 경우 지난해 계속 증가율이 낮았던 데다가 전년 동기 대비로는 아직 1.1% 늘어난 정도이기 때문에 민간 소비가 완전히 회복 국면에 들어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건설투자와 관련해서도 "작년 4분기 실적에 워낙 좋지 않았던 기저효과 영향이 있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정됐었고, 건설수주·허가면적·착공면적 등 건설 관

련 지표들이 그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다시 좀 부진한 흐름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더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향후 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다음 달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할 때는 1분기 성장률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최근 불안한 환율·유가 등을 모두 반영해 성장 경로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1분기 성장률은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에 선명해 청신호"라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관련 참고자료에서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 주도 성장'의 모습"이라며 "내수가 반등하며 수출-내수의 균형 잡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이 2.5%로 실질 성장률(1.3%)을 크게 웃돌았다"며 "실질 GDI는 국민의 구매력과 밀접한 지표로, 향후 내수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귀여운 ‘디즈니 베이비’ 만나 보세요” 25일 광주신세계 신관 지하 1층에 문을 연 ‘디즈니 베이비’ 매장 직원이 손님에게 아동복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디즈니 베이비’는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와 아가방앤컴퍼니가 협업해 만든 유아동 패션 브랜드로, 다양한 디즈니 캐릭터를 활용한 의류, 액세서리 등 상품으로 인기가 높다. <광주신세계 제공>

정의선, 세계 3대 車시장 찾아 “인도를 글로벌 수출허브로”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만에 방문 직원들과 타운홀 미팅 갖고 소통 현대차 내년말 100만대 생산체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한 인도를 찾아 미래 성장 전략을 점검하고 현지 현대차 직원들과 직접 소통했다. 지난해 8월에 이은 8개월 만의 인도 방문이다. 이는 인도 시장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한 행보로 보인다. 정 회장은 또 인도 현지 직원들과 타운홀 미팅을 갖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이번 만남은 현대차의 인도 100만대 양산 체제 구축, 전동화 본격 추진 등을 앞두고 현지 직원들과 수평적이고 열린 소통을 통해 비전을 공유하고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정 회장이 제안한 타운홀 미팅에는 장재훈 현대차 사장, 김연수 인도아중동대권역 부사장 등 경영진과 현대차 인도권역본부 임직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 회장이 해외에서 직원들과 타운홀 미팅을 갖는 것은 처음이다. 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론인 ‘고객 지향 철학’을 강조하며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바로 고객이며,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도에서의 성장 요인으로 현지 고객 신뢰, 직원 헌신, 기술력 등을 꼽으며 “인도에서 지속적으로 시장 점유율 2위를 달성하고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하며 브랜드 파워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현대차 인도권역본부 델리 신사옥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이 끝난 후 인도권역 현지 직원들의 ‘셀피’ 요청을 받고 촬영하고 있다. <현대차 제공>

점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인도를 글로벌 수출 허브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며 적극적 지원도 약속했다. 현대차그룹은 세계 모빌리티 주요 거점으로도 주목받는 인도에서 기업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전략도 공개했다. 인도의 지난해 자동차시장 규모는 500만대로 중국, 미국에 이어 3위를 유지 중이다. 승용차 시장은 410만대 규모로, 2030년에는 50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은 이러한 미래 환경 등을 감안해 현지 생산 능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푸네 지역에 20만대 이상 규모의 신공장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

며, 기아도 올해 상반기 현지 생산 능력을 43만1천대로 확대한다. 내년 하반기 푸네 공장이 완공되면 현대차는 쉐나이 공장과 함께 100만대 생산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기아까지 합하면 현대차그룹은 인도에서 약 150만대를 생산할 수 있다. 현대차는 올해 하반기 인도 첫 현지 생산 전기차를 선보이며 현지 전기차 시장 선점 행보도 본격화한다. 올해 말 쉐나이공장에서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양산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개의 전기차 모델을 투입할 예정이다. 2030년에는 전기차 총전소를 485개까지 확대한다. 기아도 2025년부터 현지에 최적화된 소형 전기를 생산하고 충전 인프라 구축을 병행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전남 4월 소비자심리지수 하락 전환

광주·전남지역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된 ‘2024년 4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4월 중 CCSI는 92.0으로 전월(93.8) 대비 1.8p 감소했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로, 20년간의 장기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두고 100 이상이면 낙관적, 낮으면 비관적임을 뜻한다. 해당 조사 결과는 광주전남본부가 광주·전남지역 543가구를 대상으로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향후 소비지출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CCSI를 조사한 결과다. 광주·전남 CCSI는 지난 2월 93.6으로 전월(92.1)보다 1.5p 상승했고, 지난달에도 93.8로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달 하락전환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22년 5월(102.3) 이후 23개월째 CCSI가 100을 하회하며 2년 가까이 지역민들은 지역 경제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CSI 구성지수별로는 현재생활형편CSI가 82로 전월에 견줘 6p 하락해 가장 많이 떨어졌고, 생활형편전망CSI(86.2p ↓), 가계수입전망CSI(93.1p ↓)가 뒤를 이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기아 오토랜드 광주 노사합동 안전 결의대회

중대재해 없는 사업장 구현 다짐 25일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장 문재웅)는 25일 ‘2024년 안전환경 목표 달성’과 임직원 안전의식 확립을 위한 안전 결의대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는 문재웅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장, 은용철 기아노조 광주지회장 등 임직원들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2024년 오토랜드광주 안전환경목표 달성을 결의해 임직원 안전의식을 확립하고, 자율안전관리를 활성화해 중대재해 없는 안전사업장을 구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참석자들은 또 2024년 기아 오토랜드광주 안전

결의문을 낭독, 서명하고 무재해를 바라는 안전지구와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펼쳤다. 기아 오토랜드광주는 이날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전 임직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각 단위 공장, 부서, 그룹 단위로 안전결의대회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아 관계자는 “이번 안전결의대회는 노사가 안전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다져 모든 임직원이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고자 실시하게 됐다”며 “금일 안전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전 임직원이 안전마인드 확립을 통해 24년 올 한해 중대재해 없는 오토랜드 광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금감원 “불법 공매도 이중으로 막는다”

기관 잔고확인·중앙서 재검증

금융당국이 기관 투자자의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 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마련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했던 ‘실시간 차단’은 아니지만, 금융당국은 이중 검증 시스템으로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시스템 구축에는 12개월가량이 소요되고, 운영을 위해서는 법 개정도 필요해 오는 7월로 예정됐던 공매도 재개 시점이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25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과 공동으로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을 열고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실시간 차단’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나 구조상 투자자의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현실화하더라도 거래 속도를 현재의 5배 이상으로 지연한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대신 당국은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기관(외국계 21개·국내 78개사)의 모든 주문 처리 과정을 전산화하기로 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28.602 (-47.13)
↓ 코스닥	853.26 (-8.97)
↑ 금리(국고채 3년)	3.543(+0.034)
↑ 환율(USD)	1375.00 (+5.80)